

건설사·저축銀 ‘죽느냐 사느냐’

정부·은행권 주도 구조조정 본격화 ... 희생불능 판정엔 퇴출

경제 부실 사전 제거 ... ‘살아남을 기업’만 자금 등 집중 지원

이번주부터 정부와 은행권 주도로 건설회사와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정부와 채권은행들은 생존 가능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한해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희생 불능’으로 판정된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거시적인 금융 쇼크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육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은행권은 더 이상 불특정 다수

를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잠재적 위기를 지속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살아남을 만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생존 불가능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퇴출시킨다는 뜻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한국경제 불만의 ‘뇌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정리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당국은 저축은행들에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 자구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부동산 프

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 저축은행의 899개 PF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상, 부실우려, 부실 등으로 분류한 뒤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정리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이외에 합부

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구조조정의 사정권에 들어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10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인수대상에 합부금융채와 카드채 등도 포함한 여신전문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되 신용등급 BBB+ 이상인 우량채권만 인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비유량 여신전문사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며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

또 100대 건설회사에 대한 ‘육식 가리기’도 본격화된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신청을 오는 18일까지 1차로 접수한다. 이번 1차 접수는 100대 건설사들이 대상이다.

건설사의 주채권은행은 사정이 어렵

지만 금융권 지원을 받으면 살아남 만한 기업을 선별해 대주단 가입을 권유하게 된다. 따라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건설사 가운데 대주단에 들어오는 기업은 살아남 수 있지만 대주단의 외면을 받는 건설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주단에 가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대출금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주채권은행 판단에 따라 신규여신도 가능하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 도산한 일부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천%가 넘었음에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부실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자보상비율이나 부채비율 등 재무상환능력을 평가해 육식을 확실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작업이 본격화되면 실업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퇴출되지 않은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경제상황에 맞춰 감원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현상은 이미 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한국産 2006년 58개

전년보다 1개 줄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한국산 제품이 2006년 58개에 그치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UN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6년 한국의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은 58개로 2005년보다 1개가 줄었고 순위는 17위로 변동이 없었다.

한국의 1위 품목이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세계 12위를 차지하며 2005년보다 0.3% 포인트가 증가했다. 1위 품목의 수출총액은 446억달러로 2005년보다 34.5% 늘었다.

반면 중국은 2006년에 2005년보다 97개 늘어난 1천299개의 세계 시장 1위 품목을 보유해 품목 수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고,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보다 품목이 적은 독일(866개)이 20.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의 1위 품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철강·선박 등 중화학 공업제품이 38개로 2005년보다 3개 늘었고, 섬유·직물 등 경공업 제품은 19개로 4개 줄었다. 2005년에 비해 섬유·의류 등을 중심으로 12개 품목이 탈락했으며 선박(화물선과 화객선), 전기 기기 등 11개 품목이 새로 1위에 올랐다.

새로 1위에 진입한 품목은 화물선과 화객선, 전기 기기, 폴리에스터, 석유 아스팔트, 철강제 저장조, 전기도체, 철강제 용기, 동니켈 및 동니켈 아연합금,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월,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등이다. /연합뉴스

對日 무역적자 290억달러

올들어 사상 최대 ... 수출액 242억 달러보다 많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규모가 같은 기간 일본으로의 수출액을 훨씬 웃돌 정도로 대일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무역적자는 289억8천5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대일 수출액 242억2천600만 달러를 큰 폭으로 앞질렀다.

10월에도 대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늘어난 24억7천100만 달러에 그치며 같은 달의 대일 적자 26억5천500만 달러에 못미쳤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6년 254억 달러에서 지난해 299억 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엔고(高) 등의 영향으로 올해도 불어나 10월까지 적자액이 벌써 지난해 연간 적자액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적자규모는 300억 달러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 경기로 전이되면서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세도 뚜렷하게 꺾이고 있다.

10월 대미 수출액은 44억4천900만 달



러로, 작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5.3%에 그치면서 9월(19.6%)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액도 53억5천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9월 26.7%에 달했던 작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5.7%로 급락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75억3천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크게 둔화돼 10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작년 동기대비 8.4% 늘어난 64억3천800만 달러에 그쳤다. 대중국 수입액 증가율은 8월에는 37.3%, 9월에는 47.2%에 달했다. /연합뉴스



“진짜 다이아몬드 받아 가세요”

16일 서울 신촌 예스APM 야외행사장에서 생활가전 및 밥솥 제조업체 리홈이 ‘다이아몬드 밥솥’ 출시를 기념해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진짜 다이아몬드를 증정하는 ‘1캐럿 다이아몬드 프러포즈’ 이벤트 홍보행사를 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밥솥은 국내 최초로 스팀보온 기능을 채용, 밥미를 현상과 변색을 억제해주는 제품이다. /연합뉴스

펀드 ‘불완전 판매’ 집단 대응 확산

주식형·ELS 투자자도 단체행동 조직

불완전판매에 대한 펀드투자자들의 집단대응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정 파생펀드와 리본브라더스 관련 추가연계펀드(ELF), 해외펀드와 선물환계약 부문에 이어 인사이트펀드 등 일반 주식형펀드와 추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도 집단행동과 소송을 모색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이 펀드 전 분야로 넓어지고 있다.

◇ELS 투자자도 집단행동 조직 =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LS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예명이 ‘법정거사인’ 이모(62·세무사)씨는 인터넷포털 다음 내 ‘펀드스쿨’이라는 펀드관련 카페에서 소송 등 집단행동을 위해 ELS로 알려진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가 결집되면 은행과 증권사 등에 손실이 발생한 ELS의 만기연장을 요구하고 청와대 등에도 집단민원을 내기로 했으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소송도 낼 예정이다.

지난해 말 단숨에 수조원이 유입돼 화제를 모았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 운용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들도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펀드선물환계약피해자 소송모임’, ‘펀드, 주식 등 불완전판매 피해자모임 소송카페’, ‘펀드 키코집단소송’, ‘펀드피해자 모임’ 등 카페 등도 잇따라 개설다.

◇변호사들도 펀드소송에 적극적 = 최근 손실을 본 펀드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결집하자 변호사들도 관련 카페를 마련하고 별도로 소송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만나 자문에 응하는 등

펀드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한반도는 최근 ‘펀드, 주식 등 불완전판매 피해자모임 소송카페’를 마련하고 손실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하는 한편 오는 22일 불완전판매 피해자 소송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상 결린 판매·운용사 =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들은 투자자들의 단체행동이 파생상품과 일반 주식형펀드 등 상품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 거의 전 상품에서 나타나자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인터넷에 만들어진 각종 소송모임의 동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유형별로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송이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공기업 44% 적자

339곳 중 149곳 ... 91곳은 3년 연속 적자 ‘허위적’

지난해 339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44%인 149곳이 적자를 냈으며, 이중 91곳은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과 공사·공단 등 339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결산자료와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44%인 149곳이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적자 기업 수는 하수도가 전체 68곳 중 59곳, 상수도가 108곳 중 52곳, 지방공단이 57곳 중 12곳, 공영개발이 28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전체 7개 지방공기업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분야별 적자 금액은 지하철이 7천579

억원, 하수도가 2천668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은 모두 91곳으로, 전년(75곳)보다 늘었다.

3년 연속 적자 공기업은 하수도 44곳, 상수도 31곳, 지하철 5곳, 지방공단 4곳, 공영개발 1곳, 기타 6곳이었고, 이 중에는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가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영진단을 한 15곳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상수도 분야에서는 전문기관 위탁관리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경영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13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4 12 24 27 28 32	10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237,691,063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8,378,018	43
3 5개 숫자 일치	1,210,752	1,363
4 4개 숫자 일치	50,950	64,780
5 3개 숫자 일치	5,000	1,020,412

팝콘복권 (제134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3조 337167
2	1억	1조 111271
3	1천만	3조 490559
4	1백만	56304
5	50만	2756
		41
6	2천	75
		37
		7
7	1천	4
		1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동양생명(주) 본사	(롯데/CJ)출소평화희망고객대상) 남아성담원 (기본120, 주5일)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1/17	02-518-2769
웰인컴	정규직 웹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18	062-225-2112
도원	파리비게드 교육담당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18	062-381-8201
신성자동차(주)	[벤츠 코리아]영업사원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9	062-376-2556
(주)한국정밀	총무 및 관리사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19	010-4603-5445
삼진MPS(주)	GS칼텍스 여수공장 행정사무 및 운전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800~3000	11/19	02-558-3385
(주)그린텔	KTF 충장로 고객지원센터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42-223-4900
휴먼전자(주)	영업(납품) 담당자	고졸/경력1년	1800~2000	11/20	062-600-7522
(주)송백 전담메일	웹디자이너/광고관련지디자이너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62-720-1028
경동택배	광주 경동화물택배 남직인 및 오전이브라이트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20	011-646-4280
(주)한양에스엔씨	러시아어 가능한 해외영업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62-382-1311
서울검사(주)	정규직 비파괴검사직원 신입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21	062-369-0790
(주)인원	제품개발 경력사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1/22	070-7547-830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주택 담보대출 정부 지급보증”

한나라 김영선 의원 추진키로

국회 정부위원장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6일 금융위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위기가 심물위기로 옮겨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위험하다”면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이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서민들에게 추가보증을 요구하거나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 대출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그는 또 “앞으로 정부 당국과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정책을 정부와 당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정부위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할 정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급 보증에 필요한 재원에 관해서는 “240조 가량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위변제율은 1%에 불과해 3조원이면 된다”며 “정부가 은행채를 살 때 일정부분을 주택담보대출에 할당하도록 하고 당장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을 5천억원 정도 확대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반토막 펀드’ 원금 회복은 언제...

“3년 이내” “예측 불가” 논란

반토막난 펀드가 원금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손실이 사실상 펀드사태의 본질이어서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원금회복 시점이다.

◇투자자들 “3년내 회복 가능성” =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펀드전문 카페인 ‘펀드스쿨’에서 ‘반토막난 펀드 원금회복기간 얼마나 걸릴까’라는 설문조사에 128명이 응했으며 이 중 ‘2년’과 ‘3년’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25%와 24%를 차지했다.

또 ‘1년’이라고 답한 경우도 17%로 집계돼 전체의 절반이 넘는 66%의 응답자가 3년 이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6년 이상’과 ‘5년’이라고 답한 경우도 각각 14%와 12%나 됐다. ‘4년’이라는 응답은 4%였다.

◇전문가들 “예측 불가” = 하락보다 회복은 배나 힘들어 = 전문가들은 현재 수익률이 -50% 정도 된다면 원금회복을 위해서는 주가가 100%가 올라야 하고 시장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예측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일단 1만원짜리 주식이 50% 하락해 5천원이 됐으면 다시 1만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 상승해야 한다며 하락 때보다 회복이 더 힘들다는 데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수익률이 50%의 손실을 기록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100%를 만회하려면 매년 10%씩 수익이 나야 하고 이를 복리로 계산하더라도 7년이 걸리며,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 시장이 회복, 손실을 만회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는 과거 통계도 제시했다. /연합뉴스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로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